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4(土)	15(日)
구름조금 13 / 25℃	구름조금 12 / 25℃

News

- 살빠지는 콜라 나온다 ②
- 완도 '괴물' 멧돼지 잡았다 ③



- 이승엽 일본에 남는다 ⑧

Jeollado

- 그 사람-김재식 前지사 ⑦

Entertainment

- 신승훈 10집음반 발매 ⑧
- 극장가 '팩션영화' 열풍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밤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피 땀어린 한반도 핵무기는 안된다”

“번쩍하더니 온세상 불바다... 다신 없어야”

광주·전남 피폭자들 日 원폭투하 당시 증언

북한 핵실험으로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살고있는 원폭 피폭자들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끔찍했던 폭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다시는 이 잔인한 무기가 사용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화끈하는 순간이 한 1분 정도 있었다. 사방이 흰해지면서 일본 호박같이 광광하던 구름이 붉어지더니 히로시마 하늘을 가득 덮어버렸어”-이화석(82·광주시 서구 화정동·당시 히로시마에 강제징병)

“아 그 것이 뿜 하더니 집이 저리 날라가 버리고, 나무가 들쭉 들쭉 들어져 갖고 다 날아가고, 참말로

귀신이 들어가 땀겨는 풀이제”-김동일(83·나주시 공산면 남창리·당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강제징용)

순간 도시는 지옥으로 바뀌어 있었고 투성이로 달려나온 여인, 화상을 입은 채 피 흘리는 군인들, 피땀으로 번한 하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으로 한국인 피폭자 중 4만명이 희생됐고 3만명이 생존했으며, 이 중 2만3천명이 한국으로 귀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들에게 무관심한 사이 한국인 피폭자의 90%는 이미 사망했다. 현재는 광주·전남 16명을 비롯 전국에 2천530명이 살아있다. 생존자

대부분은 10세 전후 어렸을 때 피폭당한 사람들이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등과 목에 화상을 입은 김동일씨는 “핵피해는 당해본 사람만 안다. 이 땅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도 원폭 피해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생생한 기억은 전남대 사회학과 출신인 진 주(33·현재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 인턴근무)씨가 ‘원폭투하 60년’을 맞은 지난해 피폭자들의 증언을 채록한 ‘고통의 역사’란 책으로 발간했다.

12일 광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진씨는 “핵 자체는 한반도를 포함한 어느 곳이든 있어서는 안되는 끔찍한 무기”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37년만에 찾아온 고국, 핵 논란 안타까워”

英 쌍둥이 입양아 광주역앞 북핵반대시위 동참



13일 북핵반대 서명을 마친 종일·종이 형제가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이 핵 위험을 안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침 북한의 핵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열린다고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김종일(다니엘 파킨슨 버메일·40), 김종이(마크 파킨슨 버메일·40)라고 이름을 소개한 이들은 지난 1969년 고아원인 광주 총현원(현 호남사회봉사회)에서 영국으로 떠난 ‘입양아’들이다.

광주에는 양어머니 앤 프랑수아(71) 여사, 마크의 부인 트레이시와 함께 왔다. 형제는 “영국 언론에서도 북핵 문제를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韓·中정상 “안보리 적절한 대응조치 지지”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데 합의하고,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낮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연합뉴스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유누스·그라민 은행

올해 노벨평화상은 방글라데시의 빈곤 퇴치 운동가인 무하마드 유누스(사진)와 그가 창설한 그라민 은행이 공동으로 받게 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무부조 소액창업 대출 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과 같은 혁신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누스는 지난 달 6일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이철승)이 주는 제8회 서울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식 참석차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

‘무력’없는 對北제재안 합의

유엔안보리, 중국측 요구 수용... 내일 채택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12일 밤(뉴욕 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에 원칙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결의안 채택이 조망기에 들어갔다.

6개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수차례 개최, 미국이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은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됐다.

이에 따라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일(한국시간 15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10월 순회 의장인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사가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상당히 완화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미국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새 타협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지난 2004년 안보리가 채택한, 이른바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에 초점을 맞춘 유엔 결의 1540에 근거한 국내법에 따라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의 사랑과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 키랄체 정제약
- 신도플 환원제
- 진어플 당인액

국제약품 전화
060-022-2250 (주선사 부임) 평일만부 고객 상담시

국제약품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제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수상하였습니다.